

겨울에야 보이는 것

에스프레소

정 상 혁

주말뉴스부 기자



무심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김 때문이었다. 출근길, 폐에 차 있던 공기가 입으로 빠져나와 얼굴을 덮었다. 간밤 몸 안에서 데워진 온기가 얇은 담요처럼 천천히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펄떡이다가 곧 바람에 울이 풀려 날씨의 일부가 돼가는 장면을 새삼 신기해하며, 영하(零下)의 기온,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날이 추울수록 입김은 짙어지고 더 쉽게 허기진다. 광역버스를 기다리며 웅기조귀 모인 사람들이 입김을 흘릴 때, 그들의 머리통은 작은 밥솥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루분의 취사(炊事)를 위해 그들은 오늘도 부스스 깨어나 옷을 꺼입었을 것이다. 따뜻한 계절에는 드러나지 않던 숨의 껍질이 숨 쉬는 일의 고단함을 생각하게 한다. 저마다 체내의 압력을 다스리며 조용히 뿜어내는 그 온기의 출처가 나는 한숨이 아니기를 바랐다.

연기(煙氣)가 땀감을 태워 남기는 도구의 흔적이라면, 입김은 우리가 온혈동물이라는 본래의 고백처럼 느껴진다. 입김에는 잡념이 섞이지 않는다.

가기엔 아무 저의도 없다. 고(故) 이어령 선생도 찬바람 부는 어느 아침 불현듯 알아챘던 모양이다. 후세를 위한 ‘입김의 시’를 남겼다. “세상이 식어 가더라도 시인이여 겨우살이를 하지 말고, 아침마다 문 밖으로 나와 그 뜨거운 입김으로 말하거라.” 꾸며낼 수 없는 입김처럼, 숨 쉬듯 정직하게 살자는 격려였으리라 짐작한다.

탄핵 국면이 깊어지고 법정(法廷)의 시간이 늘어질수록, 그러나 입김은 어떤 압박을 배경으로 더 자주 거론되고 있

세상 차갑게 식어갈수록
더 짙어지는 사람의 호흡
오염되지 않은 긴 숨결은
추워야만 본모습 드러내

다. 그 입김은 권력의 동의어다. 기온과 관계없는 입김은 의식스러운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일컫는 관용어로 사용될 때 “그 남자의 입김만 닿으면 꼭꼭 숨어 있던 비밀이 꽃처럼 피어났다”(박완서 ‘그 남자네 집’)와 같은 황홀한 고백에서조차 어떤 치밀한 계락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입김에서는 참을 수 없는 구취가 풍긴다.

답답한 마음에 더 많은 입이 광장에 모여 더운 김을 피워내고 있다. 서울이든 대구든 광주든, 작은 호흡이나마 보태려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대개의 경

우 그들의 입은 미약하고 발언권조차 없다. 그러나 함성 이후 새어나오는 날숨이 그들의 확실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각자의 폐활량만큼 피워내는 소량의 안간힘으로, 그들이 이 땅에 버텨 존재하고 있다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입김은 있기 때문이다.

숨 막히는 일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에서 입김은 덧없음을 의미한다. 험란한 운변(運變)의 시대에 고작 입김을 논하다니, 역시 무용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한가한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차라리 치솟은 난방비를 걱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월난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엄혹한 시절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가장 원초적인 내면이 있으며, 고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성찰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아침 버스에 사람들이 올라탔다. 여럿이 뿜어낸 훈김으로 금세 차창이 흐려졌다. 유리에 차고 슝글 것이 어른거릴 때 누구나 갑갑함을 느낄 것이다. 눈앞이 뿌옇고 가끔은 거추장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맥없이 잇힐 뻔한 맥박을 한파가 시작화해주고 있다. 그 조용한 흔적으로 인해 아직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음을 깨닫는다. 앞자리에 앉은 한 연인이 창에 입김을 불어넣고는 손가락을 갖다 댔다. 짜증 내거나 꾸벅꾸벅 조는 대신에, 뭔가를 그렐고 있었다.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1]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윤동주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부른 시인 윤동주(1917~1945). 그를 따라가 보면 별 헤듯이 만나는 그리움이 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이지만 생전 시집을 출간하지 못한 채, 조국 광복을 앞둔 6개월 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일곱 살에 옥사했다.

윤동주는 194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업을 기념하며 한글 시집을 내려 했으나, 은사의 염려와 엄정한 시대 상황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 육필 원고 세 부를 만들었다. 그중 친우인 정병욱(1922~1982)이 광양 고향 집에 보관한 한 부만 남아 1948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윤동주를 알렸다.

원래 시집 제목은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앓는 사람을 고치듯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자 했다. 시집 제목이 바뀐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운 흔적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지난 2월 16일은 윤동주 시인의 순국 80주기였다. 그가 체포될 당시 다녔던 일본의 대학에서는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윤동주의 흔적이 깃든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그를 기리는 마음과 발길이 이어졌다.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시구처럼 그가 내어준 길이 열린 셈이다. 그의 하숙집 터로 알려진 곳엔 작은 안내문구가 걸려 있고, 산책했다던 인왕산에는 시인의 언덕과 ‘윤동주 문학관’이 자리하게 됐다.

그의 ‘친필 원고’와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시절 시를 쓰며 생활한 기숙사 건물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그를 기억하는 공간인 ‘윤동주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아름다운 시로 시대에 저항한 윤동주 시인은 조국을 사랑하며 부끄러움을 이는 사람이었다. 떠오르는 별 하나에 조용히 이름을 불러 슬픈 사람의 뒷모습을 다스리게 보듬어 본다. 그 시를 품어준 섬진강 끝자락 망덕나무에는 봄이 왔을까? ※영상 QR코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위원회

社 説

‘북 지옥서 러 지옥’ 북한군 소망 “한국 가고 싶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 쿠르스크에) 왔다”고 밝혔다.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정찰·저격수였다면 26세의 리씨는 외아들이지만, 파병 전 3개월 간 가족과 연락을 못 했다. 그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21세의 소총수 백씨도 외아들이다. 파병된 병사 대부분이 그렇다는데, 이들 태반은 이미 전사했거나 불구가 됐다. 정권 유지를 위해 젊은이들을 가족에게도 비밀로 한 채 ‘유학’이라 속이고 이역만리의 사지(死地)로 끌고 갔다. 김정은 체제라면 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들의 인터뷰는 감시 정권 치하의 북한 동포들이 어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준다. 2015년 입대한 리씨는 고향인 평양과 가까운 황해남도 신천에서 10년간 군 복무를 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집에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번 입대하면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을 복무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에서 굶기 일쑤고 신체제, 성적 폭행도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그런 실상을 알고는 있었지만, 총탄에 터키 부서진 북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말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 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균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한시법으로 시행해보자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했다.

지금 어영부영하다가는 30년 전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뒤따르게 된다. 삼성의 경쟁자인 대만 TSMC는 10년 전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서 삼성에 밀리자 위기를 느끼고 R&D를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는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늘날 TSMC가 세계 1위로 도약한 핵심 비결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 운수, 도로, 인력 양성 지원 문제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주 52시간’ 문제는 반도체 특별법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에 해당한다. 반도체는 수천억 원을 들여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한다. 개발이 끝난 시점에도

청년을 통해 직접 들으니 치를 떼게 된다.

리씨는 러시아에 파병되기 전 북한에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했다. 2019년 12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백두산 인근에 관광 도시를 건설하러 가서 혹한 속 인가 한 채 없는 산중에 병영을 건설했다고 한다. 북한군 대부분은 건설 노예, 농사 노예다. 김정은의 열두 살 딸이 명품 코트를 입고 군 부대 시설을 다니는 이면에는 북한 젊은이들의 생지옥이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북한 생지옥에서 러시아 전쟁 지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리씨는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자신도 꿈이 있다는 말에 눈물이 나온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리씨처럼 대한민국행을 원하는 모든 북한군 포로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협상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는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

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늘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문제가 발견되거나 고객 요청이 있으면 가용 인력을 다 투입해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미적대면 바로 시장을 뺏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같은 금전 지원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더 절실하고 긴박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연구개발 분야에만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적용하자는데도 민주당은 무작정 노조 편만 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한번 예외가 주 52시간제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반도체 연구·개발에 국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그 3년 동안 노조 주장대로 노동 조건 후퇴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조항을 폐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도 했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말 같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의 실험적, 한시적 시행이라도 수용하면 된다.

2차 한·중 전쟁 시작됐다

탄핵 뒤 중국공산당의 검은 마수 ...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시진핑의 노골적 《한국 내전》개입
중국계 공무원이 현재까지
JTBC는 장악되었나? 방통위 뭐하나?
1차(6.25)는 열전, 2차는 하이브리드전

중국발 음모, 윤 대통령의 목숨 건 음전

2024~2025 《한국 정변》의 또 하나의 중차대한 축(軸)이 있다. 그것이 지닌 국제정치적 의의(意義)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중국발 검은 음모의 그림자》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건 음전(陰戰)》!

초한전, 무기 대신 음모로 잡아먹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일, 국정원을 활용하다 붙잡힌 중국인을 간첩과 연결 짓고, 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 말했다.

그의 법정대리인 차기환은 대통령 안보실장 원원식에게 물었다. “중국이 정치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으로 한국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중국이 JTBC에 천역을 투자한 것 아닌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전통적 무력+정치공작+여론전》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른바 《초한전(超韓戰)》이다. 《중국발 초한전》은 한국에선 어떻게 펼쳐졌는가?

현재는 연구관 TF가 장악? 그곳에도 중국계

중국의 한국 내정 관여는 민주화 후 좌익 정권들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됐다. 2002년엔 새 공무원법 26조를 만들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다”란 것이었다.

그래서였나? 오늘의 한병재판소 연구관 중에도 《중국계》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인은 중국인들에게 지자체 참정권도 부여했다. 중국인 간첩을 잡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이재명 국회》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재판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은 해괴한 소리를 내뿜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계가 있다는》 연구관 TF가 써준 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게 무슨 경천동지할 소리인가? 《한국 자유민주주의 법정》인가. 《《중국계가 섞인》 TF의 ‘민주민주주의 법정’》인가?

비단 사법부뿐인가? 국회의장 원원식도 시진핑에게 불려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우리의 일부였다”라 말했다는 시진핑. 그가 이번엔 “한복도 김치도 우리 것”이라 말하지나 않았을지?

행정부인 공수처-국수본-경찰도 거대한 《황화(黃禍) 프레임 속》에서 《한국 우파 대통령 사로잡는 특공대》 역할에 성실히 복무했다.

《중국몽 좀비 신세》 되려나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 이게 나라인가? 자고 일어나 보니 한국은 어느 틈에 《중공 패권주의 초한전》에 심하게 넘어가 있었다! 공공부문도, 여도, 야도, 좌도, 우도, 댓글부대도, 찬탄 홍위병도, 기업도, 언론도, 학계도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①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② 중국인 참정권을 박탈하라.
- ③ 중국인 입국자 수를 제한하라.
- ④ 중국인들의 한국 자산 구입·보유·판매를 금하라.
- ⑤ 중국 유학생 우대정책도 제한하라.



국회의장실 제공=뉴데일리

- ⑥ 중국인 참정권을 철폐하라.
- ⑦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오늘의 《한국 정변》은 《한-미-일-인도-태평양 자유 세계》냐, 《북-중-러 디지털 전체주의》냐의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이다. 광장의 자유인들은 절규한다. 자유냐 압제냐?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STOP THE STEAL.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신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2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

